

청계천 어류 모니터링의 방향과 과제

최 준 길

상지대학교 생명과학과

2005년 11월과 12월 등 총 2차례에 걸친 청계천에 대한 어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. 본 하천에서 채집된 어종은 총 4과 11종 215개체였다. 그리고 한국고유종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외래도입종인 베스와 인근에서 방류된 것으로 보이는 비단잉어와 금붕어가 확인되었다. 우점종은 피라미로 120개체(55.81%)가 확인되었으며 붕어(26.51%), 버들치(8.84%), 잉어(2.7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본 하천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은 하상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부유성 어종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미꾸리, 미꾸라지, 밀어 등 주로 바닥에서 서식하는 저서성 어종은 3개체 이하로 소수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 같이 청계천은 하천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생태적으로는 물리적인 하상구조가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서식하는 어종들의 군집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일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 향후 세밀한 조사와 장기적인 생태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으로 본 하천에 어류가 정착하여 서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하천에 내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요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파악하고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 또한 지속적인 어류조사를 통해서 개체군의 미소 서식지, 서식밀도와 성장도 및 비만도, 개체군간의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고 자연 하천의 어류상 및 군집구조와 비교하여 본 하천에 어류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하천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한편 현재 유량확보 방식으로 활용 중인 중랑천 취수장으로부터 pumping하는 방법보다는 하천의 본래 상류부인 인왕산 계곡에 소형 보 또는 댐을 구축하여 유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여 자연적 구배에 의한 하천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.